

1/31(월) 레위기 8-10장 말씀하신 그대로

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있는 책입니다.

출애굽기가 해방과 시내산 도착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,

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머문 1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(27:34).

백성들은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, 구별된 삶을 훈련받은 후

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(민수기).

출애굽기가 율법, 성막과 도구, 규례에 대한 묘사를 주로 다뤘다면

레위기는 이후의 실천적, 실제적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.

오늘 8-9장의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도 출28-29장을 전제로 합니다.

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<하라고 하신 방식 그대로> 실행해야 합니다.

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<함께 살아갈 수>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

<거룩>의 규례들이 점점 모습을 갖추게 될수록

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거리 역시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.

하나님은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잠시 보이셨다가(출3장),

시내산에서는 7일을 머무시며 번개와 천둥을 통해 보이십니다(출24장).

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정결의 절차들이 진행되면서,

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백성 가운데 머뭅니다(레8-9장).

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지 못한 채

이스라엘은 결코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할 수 없습니다.

땅과 복 이전에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(10:1-2, 출33:3 참고).

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성과 속, 부정과 정함을 분별해야 합니다(10:9-10).

이것이 복의 근원, 제사장 나라로서의 시작입니다(창12:2, 출19:6).

나는 말씀 <그대로>살고 있습니까?

❶ 나는 하나님의 <말씀하신 것>을 실행하고 있습니까?

❷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<방식>대로 실행하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레위기 8-10장